

정통부 IT투자 전도사 나서... 陳 장관 직접 DMB 시연

정보통신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 IT 투자유치설명회'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국내 주요 IT기업들과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간의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코리아 컨퍼런스 2005' 행사를 열었다.

글_권경희 기자

DMB

국내 IT업체 홍보를 위한 '국제 IT 투자유치설명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T, LG텔레콤 등 14개 IT기업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를 일정으로 개막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IT투자설명회는 유망기업들에 기업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한국 IT산업 현황과 미래전선에 관한 설명과 투자자 면담을 통해 국내 IT 성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유도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내 유망중소 IT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밝히고 해외투자자들을 만나 투자상담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진 장관은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 세계최초로 개발한 위성DMB폰 시연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IT 기술과

정책비전인 IT839 전략을 소개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가 IT기술과 서비스가 가장 먼저 구현된 국임을 설명하고 미래 IT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도 한국이 선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성장성 있는 한국 IT기업의 발굴과 투자확대가 투자자의 수익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에서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행사에는 KT, LG텔레콤, LG전자, LG마이크론, 아모텍, 코어로직, 기륭전자, 레인콤, 팬택, 인탑스, 웹젠, 유일전자, 대전전자, CJ인터넷 등이 참가해 각각 자사제품과 경영실적을 홍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3년 12월 홍콩과 지난해 12월 뉴욕·보스톤 행사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것으로 국내에선 최초로 열리는 IT관련 국제 기업설명회다. 정통부는 올 하반기에도 뉴욕과 런던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국제 IT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외국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IT기업들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도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진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유망 중소 IT기업이 많지만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IR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IT기업중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에 더 많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일 '국제 IT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